



11월 국산우유사용인증(K·MILK) 사업 홍보실적

SBS 생방송 좋은아침(10.1)

지난 10월 1일 'SBS 생방송 좋은아침'에서는 '우유는 어떤 식품보다도 신선도가 중요하다'며, 수입산 분유가 들어간 제품 중에서 국내산 우유, 유제품을 고르는 방법으로 'K·MILK'마크를 확인하는 법을 소개했다.



인요한 K·MILK홍보대사(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산우유는 철저하고 까다로운 위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안전할 뿐 아니라 신선도가 높다'며, K·MILK 마크를 꼭 확인하고 먹을 것을 당부했다.



SBS 생활경제(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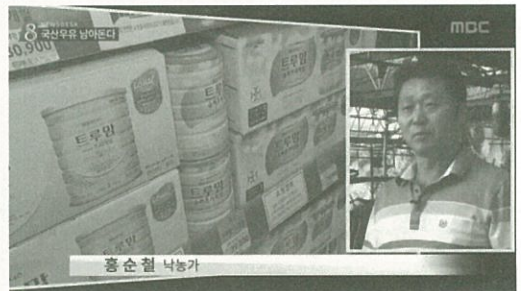
SBS 생활경제뉴스에서는 지난 10월 13일 '국산우유 인증제도 K·MILK 시행'이라는 방송을 통해 K·MILK인증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제품에 표기된 영양성분표를 통해 원유 원산지 확인을 해야만 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섞인 인터뷰에 앞으로는 마크 하나로 누구나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 사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MBC 8시뉴스(10.8)

지난 10월 8일 MBC 8시 뉴스에서는 우유소비 감소와 수입 유제품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낙농업을 지키기 위해 'K·MILK 인증마크'를 붙이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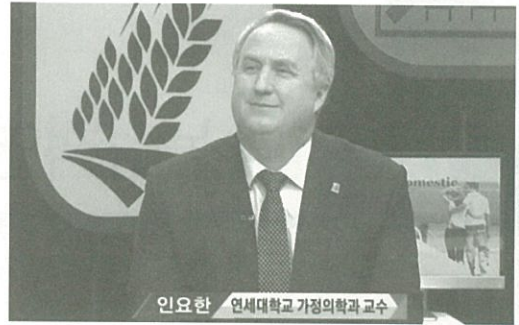
이에 방송에서 협회 홍순철 부회장은 '근본적 우유사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K·MILK 사업의 목적'이라며, 국내산 우유가 많이 소비되길 바란다고 K·MILK 사업을 소개했다.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10.20)

지난 10월 20일 방영된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 스튜디오에서 인요한 K·MILK 홍보대사가 '국산우유 재고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유의 부정적 내용이 담긴 타당치 않은 방송이 많이 나가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국산우유는 철저한 위생기준을 통해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라며 국산우유 사용을 인증하는 K·MILK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 등에서도 K·MILK 소개돼

오프라인 지면 신문에서도 K·MILK가 소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YTN 등 11개의 언론사에서 지난 9월 22일 진행된 'K·MILK 홍보대사 위촉식'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된 'K·MILK 상생협력 협약식'은 30여개 이상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 K·MILK 사업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농구장에서도 K·MILK가

농구장에서도 K·MILK 마크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10~12월 동안 인천시 프로농구단 '전자랜드 엘리펀츠' 팀 선수들이 팔에 K·MILK 마크를 부착하고 경기장을 누빈다. 뿐만 아니라 11~12월에는 농구장 바닥에도 K·MILK마크가 노출될 예정이다.

